

# 정보전달을 위한 조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ape For Informational Communication.

김현범, 배성우, 김철수, 박영목, 민규홍,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퓨전디자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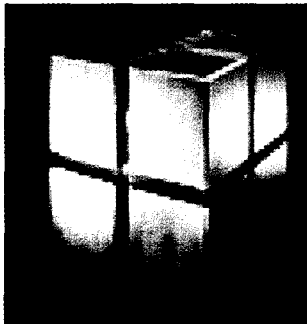
KIM Hyun-Beom, BAE Sung-Woo, KIM Chul-Su,  
PARK Yeong-Mok, MIN Kyu-Hong  
Dept. of Fus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

• Key words: Information, Shape, Symbolic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시대 디자인에서의 조형은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표어 아래 인체 공학적이고 도구의 수단으로서의 조형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물리적인 기능이 아닌 '디지털'이라는 무형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능과 조형이 분리되는 현상이 도래하게 되어 심미성만을 강조하는 장식 위주의 조형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디지털 제품은 비슷한 형태의 블랙 박스화가 되어 인지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 원리와 조형의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 조형에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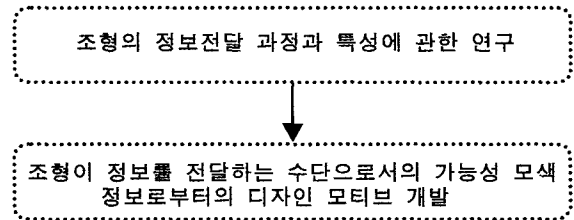
슈퍼컴퓨터가 전달하는 12차원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CPU배열에 응용하여 정보이동의 최단거리를 이끌어냄. 정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함으로써 기능과 조형을 함께 섭렵하는 새로운 디자인방향을 제시한 사례.

[그림1] 리처드 피 페인멘의 슈퍼컴퓨터 디자인 (출처: Inter Communication 1994 No.8)

본 연구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조형'이라는 의미를 조형에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먼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조형의 정보전달 과정과 특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였다. 여러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각각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을 분석, 분류와 군집화를 반복하여 '정보의 단일성', '정보의 복수성', '주관적 해석', '객관적 해석'이라는 키워드(keyword)를 도출하였다. 4가지의 키워드(keyword)를 축으로 하는 이미지 맵을 작성하고 군집간의 성격, 정보전달 과정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형의 정보전달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과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한다.



[표1] 연구 과정

## 2. 본론

### 2.1 군집(Grouping)을 통해 나타난 정보의 속성

이미지 맵에서 자연물과 비 정형적 형태, 인공물과 정형적 형태가 상반되어 군집(Grouping)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물과 비 정형적 형태는 복수성의 정보전달의 속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반면에 인공물과 정형적 형태는 단일성의 정보전달의 속성을 나타내고 객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형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텍스트나 사인 같이 직관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일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있는 반면 자연물이나 생소한 형태의 사물은 개인적 해석 차이를 크게 나타내는 복수성의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 조형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 디지털 제품들이 배치된 군집을 분석해 보면 조형의 심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간접적, 주관적인 추상적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제품들의 이러한 속성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즉 직관적인 정보의 전달 영역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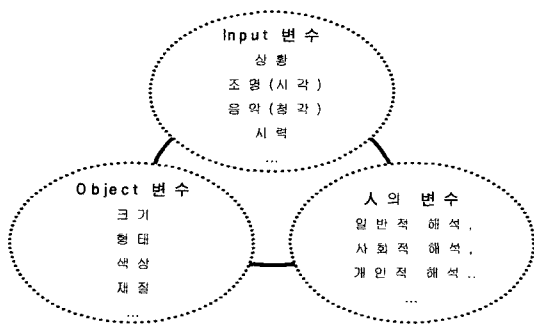


[표2] 이미지 지각과정 및 정보의 속성에 관한 군집화

## 2.2 조형의 정보전달 과정의 변수

이미지 맵을 분석 해 보면 상황에 따라 같은 형태의 사물임에도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로 수화기가 바로 놓여져 있는 전화기와 수화기가 바닥에 놓여 있는 전화기는 같은 형태의 전화기임에도 전달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데 수화기가 바닥에 놓여 있음으로서 우리는 ‘누군가 전화를 받다가 갔나?, 무슨 사건이 있었나?’ 등의 더 많은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를 축에 배치시키는 과정에서도 개인별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경험, 지식 등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되는데 이 역시 조형이 전달하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변수에 의해 정보의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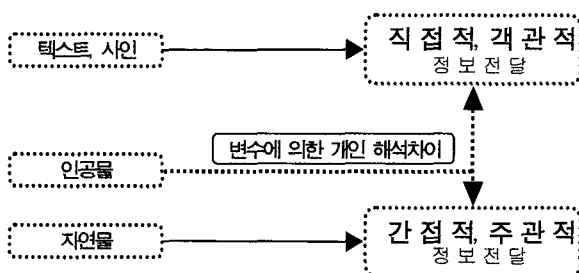
사물의 크기, 형태, 색상 등 사물자체의 변수(object 변수), 시각, 청각, 장소 등의 상황변수, 경험, 지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사람의 변수 등, 크게 3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개인에 따라 다른 해석차이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표3] 변수의 요소

## 2.3 정보전달 영역의 확대

조형의 정보전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해석차이를 줄여야 한다. 추출된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적 해석 차이를 줄여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조형'으로 영역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확대를 통하여 텍스트와 사인과 같은 직관적, 객관적 정보전달의 특성을 지닌 조형과 자연물과 같은 주관적, 복수성의 정보전달의 특성을 지닌 조형의 상호간 특성을 섭렵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조형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4] 정보전달의 영역



[그림2] 정보전달 영역의 확대

## 2.4 조형정보의 적용방안

조형이 전달하는 정보의 속성들을 디자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정보전달 과정의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이고 복수성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3가지의 변수를 고려하여 상상력을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3가지의 변수를 고려하여 개인적 해석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 3.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조형에서 자연물과 비 정형적 형태는 복수성의 정보전달의 속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반면에 인공물과 정형적 형태는 단일성의 정보전달의 속성을 나타내고 객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형이 전달하는 정보의 속성과 개인적인 해석차이를 가져오는 여러 변수들을 디자인에 적용한다면 의미를 가지는 독자적인 조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디자인에 정보의 속성과 변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전달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 디지털 제품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특성과 사용자의 정보 해석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 박영원, 디자인 기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2001
- \*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